



모태 신앙인인데 요즘 잠자리에서 자꾸 지난날 저질렀던 잘못들이 생각납니다. 주님께 죄송한 마음에 잠을 이루기가 힘든데 다시 충고해를 해야 할까요?

세례는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 받는 놀라운 은총을 선물합니다. 세례로써 우리의 지난 잘못들은 모두 용서되었고 주님께 전혀 기억되지 않습니다. “죄가 많아진 그 곳에” 내린 자비의 은총은 전혀 모자람이 없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로움”(로마 5,20-21)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때문에 주님의 용서는 늘 완벽합니다.

주님의 용서는 죄의 무게나 크기,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례의 은총으로 새사람으로 거듭난 새 삶을 살게 된 사실을 믿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죄의 용서를 미루거나 좀 더 괴로워하도록 벌을 주거나 거꾸 죄를 떠올려서 풀이 죽고 기가 죽으라고 ‘주홍 글씨’를 새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은 모두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의탁하는 도전인 까닭입니다(실사 그것이 죽음 이후일지라도).

이미 용서받은 죄를 다시 기억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난 일들을 떠올려 ‘죄인’임을 상기시키고 ‘아직 죄에 묶인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탄의 농간이니 그런 생각이 들 때 즉시 주님께 봉헌하세요. 아울러 많고 험한 죄를 모두 사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세요. 틀림없이 단잠을 선물 받을 것입니다.

『소곤소곤 아하 그런거군요』, p.94, 장재봉 신부 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술주정꾼의 모습

(잠언 23,29-35절)

시작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32장 “주여 날 인도하소서”
1,2절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 저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을
읽어 주십시오.

23, 29 누가 비탄에 젖어 있느냐? 누가 애통해하느냐?
누가 싸움질하였느냐? 누가 원망하느냐?
누가 까닭 없이 상처를 입었느냐?
누가 슬픔에 잠긴 눈을 하고 있느냐?

30 늦도록 술자리를 뜰 줄 모르는 자들
혼합주를 맛보러 온 자들이다.
31 빗같이 좋다고 술을 들여다보지 마라.
그것이 잔 속에서 광채를 낸다 해도,
목구멍에 매끄럽게 넘어간다 해도 그러지 마라.
32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독을 쏜다.
33 네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고
네 마음은 괴상한 소리를 지껄이게 된다.
34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 누운 자와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와 같아진다.
35 “사람들이 날 때려도 난 아프지 않아.
사람들이 날 쳐도 난 아무렇지 않아.
언제면 술이 깨지?
그러면 다시 술을 찾아 나서야지!” 하고 말한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술”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내가 “술”을 마시고 후회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술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에페 5,8절)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노,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 5,19-21절)

“술을 폭음하는 자들과 고기를 폭식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폭음가와 폭식가는 가난해지고 늘 술에 취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잠언 23,19-20절)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

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로마서 13,12-14절)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날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9장 “임하소서 임마누엘” 1,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들

-덕산동본당 풍호구역 2, 3반 부반장 박혜련 (로사)-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는 해군도시 진해에 위치한 덕산동 본당은 모니카 성녀를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다. 올해는 23주년 본당의 날을 맞아 체육대회와 25주년 준비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여 본당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웅천공소를 포함하여 10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덕산동본당 소공동체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봉성체에 동행하고 셋째 주일에는 공소미사를 봉헌하며,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반, 구역장 월례회를 가진다.

풍호구역 2반과 3반은 서로 다른 모임이었으나 인원수의 감소로 인해 모임을 함께 하게 되었다.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다가 대림시기에 판공 성사표와 새해 달력을 전달하면서 소공동체 모임과 성당 소식도 함께 전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시도를 해보았다. 여러 달이 지났지만 한 세대도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신앙 통신문(소식지)을 매달 보내보기로 했다. 소공동체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와 실천사항, 다음 모임일정과 공지사항으로 소식지를 구성하여, 소공동체 모임 후 쉬는 교우세대와 소공동체에 참석하지 못하는 세대를 방문하여 우편함에 넣었다.

첫 소식지를 보내었던 12월에는 판공일정과 고백성사의 자세, 교무금에 대한 의무에 대해 실었다. 1월에는

새해 인사와 새로 부임하신 신부님께서 직접 쓰신 글을, 2월에는 신부님의 가정방문 계획을 알리고 방문 가능한 시간을 조사하였다. 3월에는 판공성사 일정, 부활을 맞이하는 마음자세에 대해 실었고, 4월에는 부활달걀 바구니에 성경글귀를 담아 현관문에 걸어 놓았다. 5월과 6월에는 성모님께 드리는 시와 예수성심에 대한 묵상을, 9월에는 본당의 날 행사 참여 부탁과 바자회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여덟 차례 신앙통신문을 보낸 끝에 두 가정에서 답장을 보내왔고,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곧바로 격려의 답장을 보내었고, 병중에 있는 자매님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1년에 한 번 우리 반 가정을 위해 봉헌미사를 드리기로 하였다.

새 소식지에 실을 내용을 생각할 적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선택할지 매번 고민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소식지를 받는 그 순간에는 하느님을 바라볼 것이라 생각하며 꾸준히 소식지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어 가는 소공동체가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뿌리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풍호 2, 3반 식구들은 형제자매님들이 소공동체모임에 오시기를 등불을 켜고 기다린다.

